투데이 칼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필사적 노력 필요

조 상 중

정읍시의회 의장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주요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져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피폭하는 세슘 등 위험한 방사성 물질 140종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인체에 해가 없도록 순차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간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어차피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짙은 농도의 삼중수소를 한꺼번에 바다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 근해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굳이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7개월 후 제주도 근해,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반대여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규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인근 주변국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보다 해양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지점도 확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손들이 영구히 터전 삼아야 할 우리 바다를 우리 세대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지도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의 조치와 대응에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스라엘 종교 행사 중 압사 사고, 최소 44명 사망

지난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열린 '라그 바오메르'(Lag B'Omer) 기념행사 도중 압사 사고가 일어나 구조대원들이 수습한 사망자 시신 부근에서 대응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유대교 성지순례 행사에 약 10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최소 44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라그 바오메르'는 유대교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를 기념하는 날로 순례자들은 매년 메론산의 묘역을 방문한다.

체코 시위대 "친러 대통령은 반역"

지난 2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지난 2014년 러시아 스파이들이 체코의 대규모 탄약고 폭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친 러시아적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반역'이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 설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문제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서해안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잇는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떠나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간선도로 기능 회복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을대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을대교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연결하는 교량 길이만 7.48㎞이다. 인접도로까지 합하면 왕복 2차로 15.04㎞이다.

부산 중구 ~ 경기 파주 문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1239.4㎞)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지금은 해안도로를 따라 우회해야 하지만 다리를 건설하면 직선화가 가능해 50분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애초 이 다리를 부안의 '부'와 고창의 '창'을 본떠 '부창대교'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이 지역 서해바다 노을이 장관이어서 관광 효과를 고려해 '노을대교'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기 착공을 바라는 서명 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부안과 고창지역 주민 3만 명이 동참했다.

노을대교와 서해안 철도의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 집중을 분산해 서해안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을대교는 관광자원 개발과 낙후한 서남권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노을대교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5월에 기획재정부 예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고시가 예정돼 있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부안 두 지역의 미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부상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 논란이 계속됐던 지역 현안 사업이다. 이제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을 거듭 촉구한다.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쿠팡

얼마 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미국 뉴욕 증시 상장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1백조 원을 기록했다. 이런 쿠팡이 상장 이후 첫 투자처로 완주를 선택한 것이다.

오는 2024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3만 평에 1천3백억 원을 투자해 물품 매입과 포장, 배송 기능을 갖춘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 단일 물류 창고로는 전북 최대 규모다. 직접 고용 인원도 5백 명에 이른다.

쿠팡(Coupang)은 전자 상거래(E-Commerce) 웹사이트이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 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을 거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미국 국적인 김범석 대표가 지난 2010년 창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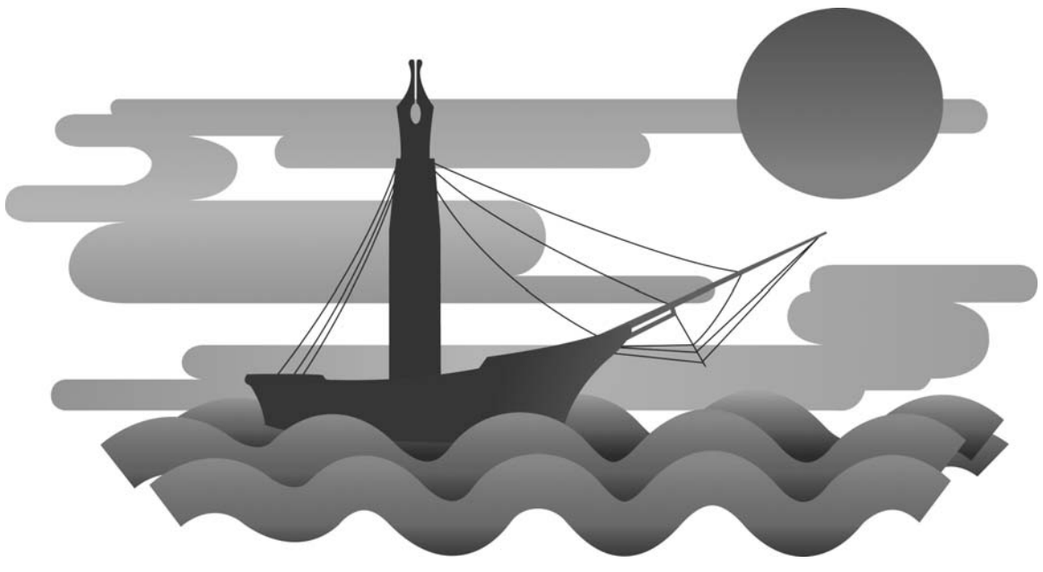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쿠팡은 대규모 자금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1위인 네이버와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급부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마트는 14년 만에 '최저가 보상' 카드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이슈로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을 꼽기도 한다. 쿠팡은 장시간 야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 노동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은 끝이 없는 일이다. 인적 지원은 회사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에 쿠팡이 들어옴으로써 전라북도의 제품들, 소상공인들, 화물업계 등은 새로운 판매를 위한 업권이 형성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의 물류센터 유치로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